

전북교육감 선거, 복합적 국면으로 전개

정책 경쟁 · 도덕성 공방 · 지지 선언 등 맞물려

전북교육감 선거가 정책 경쟁과 후보 간 공방, 그리고 지지 선언이 동시에 맞물리며 복합적인 선거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다문화 교육, 농어촌 교육, 미래 산업 연계 교육 등 정책 의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후보자 도덕성 검증과 선거 과정의 적법성 논쟁도 함께 이어지며 유권자들의 판단 요소가 다층적으로 확장되는 양상이다.

먼저 이남호 후보는 다문화·이주배경 학생 지원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전북형 교육안전망' 구축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다문화 학생 지원을 단순 복지 아닌 공교육 혁신의 핵심 축으로 보고, 한국어 교육부터 학력, 진로, 가족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거점형 한국어학급 확대 1:1 맞춤형 한국어 교육, 다국어 통번역 서비스 제공, 심리·정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학교 적응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다문화 돌봄체계 구축과 지역 기관 연계를 확대해 교육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학습 지원 영역에서는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학습, 방과후 교과 튜터링, 다문화 학생 전용 학습 코칭 등을 통해 한국에 습득이 실제 교과 성취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가정 지원 정책으로 다문화 학부모 대상 학교생활 이해 교육, 양육 코칭,

이남호 후보, 전북형 교육안전망 구상... "한국어부터 진로까지 통합 지원"

도내 농민단체, 천호성 후보 지지 선언... "농어촌 학교 살릴 적임자" 강조

이 후보 과거 음주운전 전력 · 천 후보 둘러싼 사전선거운동 의혹 논쟁 부각

이종언이 부모교육, 진로·진학 설명회 정례회, '다문화 부모 아카데미' 운영 등을 포함했다.

진로 분야에서는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멘토링 직업체험, 대학·기업 연계 프로그램 장학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체류·진학·취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또한 Wee센터, 가족센터, 학교, 위탁기관 등을 연계한 통합 상담망 구축을 통해 장기 사례관리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 국면에서는 도덕성 및 선거 과정 적법성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단체와 진영에서는 이남호 후보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청렴도 문제 등을 거론하며 공직 후보자로서의 도덕적 기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감의 경우 일반 공직자보다 더 높은 윤리 기준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엄정한 검증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반면 교육계 일각에서는 정책 경쟁보다 네거티브 공방이 과열될 경우 교육 정책 논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후보 검증과 정책 논의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이와 동시에 또 다른 주요 후보인 천호성 후보를 둘러싼 사전선거운동 의혹 논쟁도 선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남호 후보 측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특정 온라인 단체 대화방 운영 정황과 선거 전라 관련 자료, 문자 발송 계획, 여론조사 대응 메시지 등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조직적 선거 준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남호 후보 측은 해당 대화방에 현직 교원 및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여한 정황을 언급하며, 일부 자료가 실제 캠프 홍보 전라와 유사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문자 대량 발송, 언론 대응 조정, 여론조사 대응 후보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청렴도 문제 등을 거론하며 공직 후보자로서의 도덕적 기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감의 경우 일반 공직자보다 더 높은 윤리 기준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엄정한 검증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반면 교육계 일각에서는 정책 경쟁보다 네거티브 공방이 과열될 경우 교육 정책 논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후보 검증과 정책 논의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이와 동시에 또 다른 주요 후보인 천호성 후보를 둘러싼 사전선거운동 의혹 논쟁도 선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남호 후보 측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특정 온라인 단체 대화방 운영 정황과 선거 전라 관련 자료, 문자 발송 계획, 여론조사 대응 메시지 등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조직적 선거 준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남호 후보 측은 해당 대화방에 현직 교원 및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여한 정황을 언급하며, 일부 자료가 실제 캠프 홍보 전라와 유사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문자 대량 발송, 언론 대응 조정, 여론조사 대응 후보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청렴도 문제 등을 거론하며 공직 후보자로서의 도덕적 기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감의 경우 일반 공직자보다 더 높은 윤리 기준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엄정한 검증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반면 교육계 일각에서는 정책 경쟁보다 네거티브 공방이 과열될 경우 교육 정책 논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후보 검증과 정책 논의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성을 강조하며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반대하고 지역 학교를 거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라고 평가했다.

천 후보는 이에 대해 농촌유학 확대와 교육귀촌 모델 구축을 통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전북형 교육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군산 지역 방면에서는 미래산업과 연계한 교육 비전을 제시하며 산업 구조 변화의 의견 교환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자 메시지나 현수막 관련 논의에 대해서도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라 명절 인사 등 일반적인 소통 차원의 내용으로 공식선거운동 하용 범위 내 활동이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천 후보 측은 이남호 후보 측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며,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는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천 후보는 농어촌 교육 문제 해결과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전북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은 공식 성명을 통해 농어촌 학교 위기 극복과 지역 소멸 대응 차원에서 천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작은학교 특성화 지원 확대, 농어촌 교육재정 강화, 교육과정 다양화, 지역 기반 교육공동체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들은 특히 농어촌 유학생 확대, 마을과 학교가 결합된 교육 모델, 생태·농업·돌봄 연계 교육 확대 필요

완주교육지원청, 삼례중서

청렴문화 캠페인 진행

완주교육지원청이 학생 참여형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삼례중학교에서 청렴 캠페인을 진행했다.

완주교육지원청 청렴 서포터스 회원들은 지난 26일 삼례중학교에서 '청렴 문화 캠페인'을 실시하며 학생들의 청렴 의식 제고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일상 속 청렴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쉽게 전달하고 참여 중심 활동을 통해 청렴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청렴 퀴즈 존'이 운영돼 학생들이 퀴즈를 풀며 자연스럽게 청렴 개념을 배우는 시간이 마련됐다. 정답자에게는 소정의 간식이 제공돼 학생들의 높은 참여를 이끌었다.

또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청렴 홍보물과 리플릿이 배포되며, 청렴한 교육 공동체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됐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학생은 "처음에는 간식을 받기 위해 퀴즈를 풀었지만 문제를 통해 정직과 공정이 청렴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청렴은 어른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가치라는 것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영민 교육장은 "학생들이 청렴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실천하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청렴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올 상반기

기술직 공무원 직무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기술직 공무원의 청렴의식 제고와 학교 건설 현장 안전·품질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전북교육청은 26일 전북특별자치도 담미수관에서 '2026년 상반기 기술직 공무원 직무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시설직, 공업직, 녹지직 등 기술직 공무원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건설 현장 안전관리 능력 향상과 현장 대응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특히 부패방지 교육을 병행해 청렴의식과 반부패 역량을 함께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 과정에서는 태극금자법,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 방지법 등 주요 제도 안내가 이뤄졌다.

또한 건설공사 현장 지도점검 사례 교육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역본부 김병철 건설안전품질실장이 강사로 참여해 실제 현장 점검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 대응 능력을 높이는 교육이 진행됐다. /오상근 기자

전북대, 탈레스코리아와 협력

방산·우주 인재양성 '속도'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글로벌 항공우주·방위산업 기업 탈레스코리아와의 협력을 확대하며 미래 방산·우주산업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프랑수아 피올레(François Piolet) 탈레스코리아 대표이사는 최근 전북대를 방문해 양오봉 총장과 면담을 갖고, 첨단 방산 분야 산학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체결된 방산 인재양성 및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앞서 협약을 통해 글로벌 방산인재 양성, 장학 프로그램 운영, 공동 연구, 인턴십 및 멘토십 추진 등 교육과 산업을 연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피올레 대표는 전북대 피지컬 AI 융합기술사업추진단을 찾아 유무인 복합체계의 피지컬 AI 기반 연구개발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글로벌 산학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첨단방산학과 및 방위산업융합과정 재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방산·우주산업 생태계 진흥과 미래'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 학생선수들, 소년체전서 선전

금6·은17·동21개 획득... 꾸준한 경기력으로 성과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단이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꾸준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6일부터 부산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대회에 육상 37개 종목 총 809명의 학생선수단이 출전해 전국 무대에서 가량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북 선수단은 금메달 6개, 은메달 17개, 동메달 21개를 획득하며 다양한 종목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선수들은 승패를 떠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경기 태도로 전북 학생체육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금메달은 태권도 장지술(모현초), 물러 감하연(전주중), 수영 오채연(전북체중), 유도 이승환(인후초), 물러 전북선별팀, 스쿼시 류지안(남부안클럽) 등이 획득하며 전북 선수단의 선전에 힘을 보탰다.

이번 성과는 학생선수들의 꾸준



한 노력과 지도자들의 헌신, 학교 현장의 체계적인 훈련이 함께 이룬 결과로 분석된다.

전북교육청은 대회 전부터 훈련 여건 점검과 학생선수 안전 관리, 컨디션 조절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대회 준비를 지원했다. 대회 기간에도 현장 상환실을 중심으로 경기 결과와 선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현장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오상근 기자

불법 사교육 온라인 광고 '게 셋거라'

전북교육청, 집중 모니터링 나서... 위반 의심사례 13건 확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입시·보습학원의 불법 온라인 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 의심 사례 13건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교육부의 교육분야 물가 관리 방안에 따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의뢰해 진행됐으며, 전북 소재 입시·보습학원의 누리집과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광고 채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위반 의심 유형은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 6건, 거짓·과대광고 4건, 무등록 운영 의심 2건, 선형학습 유발 광고 1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등록 금액보다 높은 교습비를 광고에 게시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위반 업체에 대해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습비를 임의로 인상하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로 학습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 시장을 혼탁하게 만든다"며 "현장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사교육 행위는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통해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익산교육지원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이 지난 22일 '2026년 KIST와 함께하는 청소년 과학사교육' 오리엔테이션을 연 가운데,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역 과학인재 양성 본격... 2026 청소년 과학사교육

익산교육지원청-KIST 전북분원

161명 참여... 10월까지 운영

익산교육지원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이 지역 미래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했다.

양 기관은 지난 22일 '2026년 KIST와 함께하는 청소년 과학사교육'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선발된 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진로 멘토링과 과학 탐

구 활동을 오는 10월까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는 정성환과 최원국을 비롯해 멘토 연구원 10명과 고등학생 멘티 33명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멘토 위촉장 및 멘티 실습수여식 연구실 탐방 순으로 진행됐다.

'청소년 과학사교육'은 지난 2021년 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올해까지 익산 지역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총 161명이 참여했

다. 지역을 대표하는 과학 교육 브랜드로 자리 잡으며 지속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수료한 뒤 광주과학기술원(GST)에 진학한 학생 사례가 소개되며 참여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탐구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기반 과학 인재 양성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도내 고교 수학 인재들, 글로벌 역량 키운다

전북교육청, 내달 2일까지 '글로벌수학탐험대' 해외연수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고등학생 수학 인재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 현지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26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도내 고등학생 18명이 참여하는 '글로벌수학탐험대' 학생 해외연수를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수학적 사고력과 국제적 감각을 기르고 세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6박 8일 일정 동안 UC버클리 스탠퍼드대학교, 산호세 주립대학교, UCLA 등 미국 서부 주요 대학에서 진행되는 특강에 참여해 최신 수학

이론과 응용 분야를 접하게 된다.

또한 세계적인 IT 기업이 밀집한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수학이 실제 산업과 기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체험하고, 현지 고등학교와의 교류를 통해 국제 협력의 중요성도 배우게 된다.

이번 연수는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세계 교육·연구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학생 스스로 진로를 구체화하고 학습 동기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참가 학생들의 기대감도 높다. 전주와 익산 지역 학생들은 "세계적 대학 강의를 직접 듣고 수학과 AI의 연결을 배우고 싶다"며 높은 기대를 나타냈다. /오상근 기자